

文末 助詞 ‘よ’의 發話 意圖에 따른 音響音聲學的 特性에 관한 考察

김주연*
sanae618@hanmail.net

<目次>

- | | |
|---------------------------|--|
| 1. 들어가며 | 5.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よ’의 음성적인 특성 |
| 2. 선행연구의 검토 | 6. 일본어 모어화자와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よ’의 음성적인 특성의 대조 |
| 3. 조사방법 | 7. 나오며 |
| 4. 일본어 모어화자의 ‘よ’의 음성적인 특성 | |

主題語: 문말조사(sentence-final particles), 인토네이션(intonation), 발화의도(speaker's intention), 음성적인 특성(phonological features), 음성(speech)

1. 들어가며

최근 일본어 학습에서 의사소통 능력이 중시됨에 따라 자연스러운 일본어 음성을 통한 일본어 구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의사소통 능력을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가 일본어를 학습하는 입장에서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일본어 모어화자와의 일상생활에서의 대화에서부터 한일 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상황에 맞는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의사소통에서 오해가 생긴다는 것은 언어 습득이 어휘나 문법만을 학습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어진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적절한 음성으로 실현하는 언어 능력을 습득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다. 흔히 한국과 일본을 가깝고도 먼 이웃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지금까지의 양국의 서로에 대한 정서를 대변하는 표현으로, 서로의 인식의 차이를 줄여서 진정한 소통이라는 공동선(共同善)을 이루기 위하여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요소를 하나씩 해결해 가는 가운데 극복되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의사소통 주체자인 화자와 청자 사이에서 의사소통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 한양대학교 일본언어 문화학과 강사

요소 가운데 하나인, 인토네이션의 변화만으로 다양한 의미와 감정 표현을 전달하는 문말 조사 ‘よ’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문말 조사 ‘よ’는 다양한 발화 의도를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잘못 사용되는 경우 화자의 발화 의도 및 뉘앙스가 달라져 원활한 의사소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자연스러운 인토네이션으로 발음하는 경우 각각의 분절음의 발음이 다소 부자연스럽더라도 자연스럽게 들린다고 하는 민광준(1989)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실현하는데 인토네이션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의 음성 교육도 정확성 보다는 유창성, 자연성을 강조하게 되면서 문장 단위의 인토네이션 교육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게다가 인토네이션은 발화 의도의 변별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어를 일본어답게 구사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므로 음성 교육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학습해야 하는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화자의 다양한 발화의도를 나타내는 문말 조사 ‘よ’를 대상으로 일본어 모어 화자의 음성적인 특징을 살펴보고, 이와 대조적인 관점에서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에게 나타난 문말 조사 ‘よ’의 인토네이션에 관한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밝힘으로써,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일본어 음성 교육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음성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 과정에서 화자의 발화 의도와 인토네이션의 대응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화자나 청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며, 특히 외국어 교육에서 이 대응관계를 체계적으로 지도하지 않으면 원활한 의사소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본 연구는 일본어 교육 현장에서 발화 의도에 따른 인토네이션을 지도하는데 기초 자료로써 유용하게 활용되어 일본어의 음성 교육 분야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

2. 선행연구의 검토

2.1 선행연구

문말 조사로써 자립하지 않고 각종 술어의 기본형이나 ‘た’형 등에 접속하는 조사인 ‘よ’¹⁾에

1) ‘よ’는 연구자에 따라 문말사, 문말 조사, 종조사 등의 다양한 호칭으로 불리는데, 본고에서는 『新版 日本語教育事典』(2006:22)에 있는 문말 조사와 음조라는 설명에 따라 문말 조사라고 표기하고 이하의

관한 인토네이션을 중심으로 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小山哲春(1997)은 문말 조사는 대인적 전달기능을 수행하고, 특히 대화에 있어서 중요하면서도 불가결한 요소라고 하며, 그 다양한 기능이 문말 인토네이션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리고 ‘よ’의 인토네이션의 종류에 따라 상승조(↗)는 ‘알림·고지·호소’, 하강조(↘)는 ‘정정’, 하강상승조(↗↘)는 ‘강한 의심’이라고 의미를 분류하였다.

片桐恭弘(1997)는 문말 조사를 구어에 나타나는 특징으로 규정하고, 문말 조사를 동반하지 않는 문장은 회화에서 부자연스럽기까지 하다고 하였다. ‘よ’는 정보귀속의 관점에서 화자에 귀속하는 정보를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다.

조복순(2000)은 문말 조사 ‘よ’를 대상으로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발화 의도에 따른 인토네이션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긍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よ’보다 거절의 의미를 나타내는 ‘よ’가 부자연스럽게 발음되었는데 이는 거절의 의미를 나타내는 ‘よ’를 교재에서 거의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よ’의 발화 의도에 따른 인토네이션이 단순히 학습 기간이 길어진다 고 해서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며 인토네이션을 위한 교육과 교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지아(2005)는 교양일본어 교재를 분석하여 일본어 문말 조사 ‘よ’와 ‘ね’가 어느 정도 다루어지고 있는지와 ‘よ’와 ‘ね’의 인토네이션을 조금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가 억양표기가 없는 경우와 억양표기가 있는 경우 어떻게 발음하는지에 대하여 자연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よ’를 중심으로 결과를 살펴보면, ‘よ’는 주로 ‘알림’의 의미에 편중되어 다루어지는 경향이 많은데다가, 교재에 ‘よ’의 발화 의미별 출현 분포가 고르기 못해 효과적인 학습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よ’의 인토네이션을 억양표지가 없이 발음한 경우 전체적으로 부자연스러웠지만 억양표기를 보면서 발음한 경우 자연스러워졌다고 하면서 교재에 억양 표기에 대한 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은재(2012)는 중·고등학교 일본어 교과서에 인토네이션 학습에 필요한 항목들이 얼마나 도입되어 있는지와 일본어 교과서를 바탕으로 일본어를 학습한 학생들이 실제 일본어 발화에 있어서 얼마나 정확한 ‘よ’의 인토네이션을 구사하고 있는지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가 가장 자연스러운 인토네이션을 구사했던 항목은 ‘명령’과 ‘금지’ 항목이고, 가장 어렵게 여긴 항목으로는 ‘강조’와 ‘조언’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녹음 실험을 통하여 몇 가지 항목을 제외하고는 자연스러운 인토네이션을 사용하여 일본어를 구사하는 경우가 매우 적었고, 많은 학습자들이 인토네이션 자체에 대해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발화하거나 또는 오히려 더 어색하게 발화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명칭을 통일한다. 이는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문말 조사 ‘よ’의 발화 의도에 따른 인토네이션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는데 기인한다.

위에서 살펴본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화자의 발화 의도를 표현하는데 문말 조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공통된 인식은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 발음할 때 자연스럽게 발화 의도에 따른 ‘よ’의 인토네이션을 구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내용이다. 대부분의 교재가 주로 ‘よ’의 ‘알림’에 해당하는 의미에 편중해 다루고 있어 ‘よ’를 발화 의도에 따라 골고루 다루고 있지 못한 것도 그 원인의 하나로 지적하면서, 단순히 학습 기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저절로 습득되지 않으므로, 발화 의도에 따라 어떻게 적절하게 표현하면 좋은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2.2 ‘よ’의 인토네이션에 관여하는 요인

민광준(2008)에 의하면 인토네이션에는 말하는 사람의 미묘한 심리 상태와 감정을 나타내는 정서적 기능과 평서문과 의문문을 구별하고 문장의 수식관계를 명시해주는 문법적인 기능이 있다고 한다. 전자의 정서적 기능은 음 높이의 변화의 폭, 길이, 세기, 음색의 변화 등에 의해서, 후자의 문법적인 기능은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각 단어의 본래의 악센트를 약화시키거나 또는 강화시킴으로써 실현된다고 한다.

‘よ’의 다양한 발화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어떠한 인토네이션으로 표현되는지 파악하는 것을 통해서 발화 의도에 따른 문장의 인토네이션을 좌우하는 요인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발화 의도가 문장의 인토네이션을 좌우하는 요인에는 무엇이 있으며 또 그 요인들이 어떻게 문장의 인토네이션을 규정하고 있는지를 기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 장에서는 발화 의도에 따른 ‘よ’의 인토네이션에 관여하는 음성적인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3. 조사방법

3.1 조사 목적

본고에서는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를 위한 발화 의도에 따른 ‘よ’의 인토네이션 교육에 필요한 음성적인 특징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일본어 모어화자의 발화 의도별 ‘よ’의

인토네이션에 관하여 음향음성학적인 분석을 하고, 한국인 학습자의 발음에 나타난 ‘よ’의 인토네이션의 특징을 일본인의 발음과 대조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2 조사 대상자

동경 방언을 사용하고 있는 일본인 15명(남3명, 여12명)과 서울말을 사용하는 초급 일본어 과정의 한국어 학습자 30명(남15명, 여1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²⁾. 한국인 학습자의 경우 간단하게 기초 일본어 능력을 확인해 본 결과 일본어 실력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³⁾.

3.3 조사 자료와 항목

분석 대상이 된 자료는 아래에 제시한 (1)의 입소문이 난 영화를 아직 보지 않은 청자에게 편찬은 영화라고 말하는 ‘정보제공’의 의도, (2)의 청자에게 약속 시간이 8시라고 몇 번이나 확인했는데 몰랐냐고 가볍게 채근하는 ‘충고’라는 의도를 나타내는 문장으로, 田中(1999)에 나오는 것을 사용하였다⁴⁾. 예문에 해당하는 ‘よ’의 발화 의도를 설명하고, 발화 의도에 따른 인토네이션을 따라하게 하는 연습을 하였다. 학습자가 발화 의도에 따른 ‘よ’의 인토네이션을 들어보고 발화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여 음성 CD가 있는 문장을 사용하였다.

(1) とてもすばらしいえいがでしたよ。(정보제공)

(2) やくそくのじかんははちじですよ。(충고)

-
- 2) 조사 대상에서 성별에 의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아서, 일본인과 한국인의 성비를 맞추지는 않았지만, 성별에 따른 주파수성분역의 차이가 커서 참고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성별에 따른 조사 결과를 별도로 제시하였다.
- 3) 일본인 음성은 디지털 녹음기(SONY PCM-D50)를 이용하여 녹음한 후 퍼스널 컴퓨터(SAMSUNG SENSIR 430)를 사용하여 *praat*으로 분석하였다. 조용한 곳에서 ‘よ’의 발화 의도를 설명하고 실험 문장을 읽도록 부탁한 뒤, 본인의 발화를 본인이 납득할 때까지 연습하는 과정을 녹음한 상태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발화된 문장을 선택하였다.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는 金姓衍(2013)에서 수집한 조사 대상자의 음성을 사용하여 일본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 4) 일본어 교재를 분석한 결과, 주로 ‘알림’의 의미를 나타내는 ‘よ’가 많았다는 이지아(2005)와 한국인 학습자가 가장 어렵게 여긴 항목이 ‘조언’의 ‘よ’라는 이은재(2012)의 연구에 근거하여, 발화의 도에 따른 ‘よ’의 인토네이션을 조사하기 위한 시작단계로서 다양한 ‘よ’의 의미 가운데 ‘알림’과 ‘조언’의 의미의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알림’은 가장 출현 빈도가 높으므로 학습이 비교적 용이하고, ‘조언’은 선행 연구에 근거해 학습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제에서 학습자의 발화 의도에 따른 음성적인 특징이 보다 명확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에서 ‘정보 제공’과 ‘충고’로 재명명하여 살펴보았다.

발화 의도에 따른 ‘よ’의 인토네이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은 일본어 모어화자 발화의 ‘정보제공’의 의미를 나타내는 ‘よ’와 ‘충고’의 의미를 나타내는 ‘よ’에 해당하는 소리의 길이, 높이의 최고점과 최저점 · 높낮이의 폭 · 높낮이의 유형, 강세의 최고점, 최저점 · 강약의 폭, 모음의 f1, f2값을 살펴보았다⁵⁾. 그리고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같은 지점을 측정하고 그 값을 일본인과 대조해 보았다.

그리고 위에서 조사한 값이 일본어 모어화자와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들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정을 실시하였다.

<표 1> ‘よ’의 분석 항목

조사 항목		‘よ’의 발화 의도	
		정보 제공	충고
길이 (ms)	‘よ’의 길이(A)	○	○
	전체 문장 길이(B)	○	○
	(A)/(B) 비율	○	○
높이 (Hz)	최고점	○	○
	최저점	○	○
	높이 폭	○	○
	‘よ’의 높낮이 유형	○	○
강세 (dB)	최고점	○	○
	최저점	○	○
	강세 폭	○	○
모음 (Hz)	f1	○	○
	f2	○	○

5) 『新版 日本語教育事典』(2006:29)에 의하면 포먼트(formant)는 성도의 공진에 의한 것으로, 보통 유성음, 특히 모음의 경우 낮은 쪽에서부터 제1포먼트, 제2포먼트라고 부르는데 f1, f2 등의 기호를 사용한다. 모음은 이들 f1, f2의 상대적인 분포로 구별된다고 한다. 음색의 차이는 성도 내에서 공명해 증폭되는 주파수성분역의 차이에서 발생하는데, 증폭의 방법은 성도의 장단에 관계하기 때문에, 성인 남성에 비해 여성이나 어린이는 포먼트역이 높은 주파수방향에 위치한다고 한다. f1은 입의 개방 정도를 나타내고, f2는 혀의 전후움직임을 나타낸다고 한다.

4. 일본어 모어화자의 ‘よ’의 음성적인 특성

4.1 일본어 모어화자의 문말 조사 ‘よ’의 길이

4.1.1 전체 문장 및 ‘よ’의 길이의 차이

일본어 모어 화자에게서 나타나는 발화 전체 문장 및 ‘よ’의 길이에 대한 특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よ’의 길이와 관련해서는 ‘정보 제공’은 .202(ms), ‘충고’는 .199(ms)이다. 전체 문장 길이는 ‘정보 제공’은 1.796(ms), ‘충고’는 2.009(ms)로 ‘충고’의 길이가 더 긴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두 문장은 글자의 수가 같음에도 ‘충고’를 나타내는 문장이 더 길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문말 조사이외의 문장의 특성도 ‘よ’의 발화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추측할 수 있다.

<표 2> 발화 의도별 일본어 화자의 전체 문장 및 ‘よ’의 길이(단위 ms)

조사 항목	정보 제공	충고	<i>t</i>
‘よ’ 길이(A)	.202	.199	.133
전체 문장 길이(B)	1.796	2.009	-3.579 **
(A)/(B) 비율	11.126	10.015	.950

주: * $p<.05$, ** $p<.01$, *** $p<.001$

4.2 일본어 모어화자의 문말 조사 ‘よ’의 높이 및 강세

4.2.1 ‘よ’의 높이

일본어 모어화자에게서 나타나는 발화 의도별 높이의 최고점 및 최저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최고점과 관련해서는 ‘정보 제공’은 219.294(Hz), ‘충고’는 227.221(Hz)이다. 최저점에 대해서는 ‘정보 제공’은 163.568(Hz), ‘충고’는 156.612(Hz)이며, 높이의 폭은 ‘정보 제공’은 55.714(Hz), ‘충고’는 70.609(Hz)이다. 해당 수치들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표 3> 발화 의도별 일본어 화자의 ‘よ’의 높이 최고·최저점, 폭(단위 Hz)

조사 항목	정보 제공	충고	t
높이 최고점	219.283	227.221	-.475
높이 최저점	163.568	156.612	1.099
높이 폭	55.714	70.609	-.803

주: * p<.05, ** p<.01, *** p<.001

아래 <표 4>는 성별에 따른 ‘よ’에 관한 높이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나 통계적 유의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표 4> 발화 의도와 성별에 따른 ‘よ’의 높이 최고·최저점, 폭(단위 Hz)

조사 항목		남자	여자
정보제공	높이 최고점	128.205	242.052
	높이 최저점	107.818	177.506
	높이 폭	20.387	64.546
충고	높이 최고점	146.845	247.315
	높이 최저점	114.357	167.175
	높이 폭	32.488	80.139

4.2.2 ‘よ’의 강세

일본어 모어화자에게서 나타나는 발화 의도별 강세의 최고점 및 최저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최고점과 관련해서는 ‘정보 제공’은 81.363(dB), ‘충고’는 82.427(dB)이다. 최저점에 대해서는 ‘정보 제공’은 71.545(dB), ‘충고’는 78.972(dB)이며, 강세의 폭은 ‘정보 제공’은 9.818(dB), ‘충고’는 3.455(dB)이다. 해당 수치들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표 5> 발화 의도별 일본어 화자의 ‘よ’의 강세 최고·최저점, 폭 (단위dB)

조사 항목	정보 제공	충고	t
강세 최고점	81.363	82.427	-.642
강세 최저점	71.545	78.972	-.975
강세 폭	9.818	3.455	.770

주: * p<.05, ** p<.01, *** p<.001

아래 <표 6> 는 성별에 따른 ‘よ’에 관한 강세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나 통계적 유의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표 6> 발화 의도와 성별에 따른 ‘よ’의 강세 최고·최저점, 폭 (단위dB)

조사 항목		남자	여자
정보제공	강세 최고점	74.074	83.186
	강세 최저점	58.152	74.893
	강세 폭	15.923	8.292
충고	강세 최고점	74.278	84.464
	강세 최저점	61.469	83.348
	강세 폭	12.808	1.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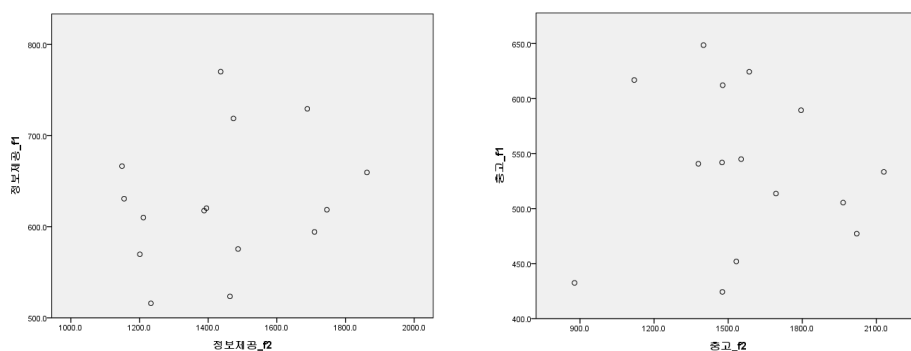
4.3 일본어 모어화자의 문말 조사 ‘よ’의 모음의 음성적 특성

일본어 모어화자의 모음 특성의 경우 f1의 값에서 정보제공(627.974Hz)이 충고(537.111Hz)에 비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f1은 입의 개방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정보제공’의 의도로 사용된 ‘よ’가 ‘충고’의 의미보다 입의 개방정도가 큰 상태에서 발음된다고 할 수 있다.

<표 7> 발화 의미별 일본인 모어화자의 모음 특성(단위 Hz)

조사 항목	정보 제공	충고	t
f1	627.974	537.111	3.998 **
f2	1440.049	1565.538	-1.381

주: * $p<05$, ** $p<01$, *** $p<001$



<그림 1> 발화 의도별 일본인 모어화자의 f1과 f2의 관계
(좌측: 정보제공, 우측: 충고)

아래 <표 8>은 성별에 따른 ‘よ’에 관한 높이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나 통계적 유의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표 8> 발화 의미 및 성별에 따른 일본어 화자의 모음 특성(단위 Hz)

	f1		f2	
	정보제공	충고	정보제공	충고
남자	538.313	475.041	1394.607	1263.298
여자	650.390	552.628	1451.409	1641.098

주: * $p<.05$, ** $p<.01$, *** $p<.001$

4.4 일본어 모어화자의 문말 조사 ‘よ’의 높낮이 유형

일본어 모어화자의 경우 ‘정보 제공’에서는 하강이 26%, 상승이 73.3%를, ‘충고’에서는 하강이 13.3%, 상승이 86.7%로 파악되어, ‘정보 제공’의 경우와 ‘충고’의 경우 평균적으로 상승조를 띠고 있어서 높낮이의 유형의 만으로는 발화 의도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9> 발화 의도별 일본인 화자의 ‘よ’의 높낮이 유형 비율(단위 %)

	정보제공	충고
↘ (하강)	26.7	13.3
↗ (상승)	73.3	86.7

위에서 일본어 모어화자의 음성을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よ’의 ‘정보 제공’과 ‘충고’의 발화 의도 사이에 유의차가 인정되는 곳은 발화 전체 문장 길이와 모음의 f1값인 것을 알 수 있다.

5.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よ’의 음성적인 특성

5.1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문말 조사 ‘よ’의 길이

5.1.1 전체 문장 및 ‘よ’의 길이의 차이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에게서 나타나는 발화 전체 문장 및 ‘よ’의 길이에 대한 특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よ’의 길이와 관련해서는 ‘정보 제공’은 .232(ms), ‘충고’는 .249(ms)이다. 전체 문장 길이는 ‘정보 제공’은 2.564(ms), ‘충고’는 2.565(ms)로 ‘충고’의 길이가 더 긴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통계적 유의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표 10> 발화 의도별 한국인 학습자의 전체 문장 및 ‘よ’의 길이(단위 ms)

조사 항목	정보 제공	충고	t
‘よ’의 길이(A)	.232	.249	-.730
전체 문장 길이(B)	2.564	2.565	-.012
(A)/(B) 비율	9.176	10.082	-1.040

주: * p<.05, ** p<.01, *** p<.001

5.2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문말 조사 ‘よ’의 높이 및 강세

5.2.1 ‘よ’의 높이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에게서 나타나는 발화 의도별 높이의 최고점 및 최저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최고점과 관련해서 ‘정보 제공’은 175.904(Hz), ‘충고’는 195.471(Hz)이다. 최저점에 대해서는 ‘정보 제공’은 140.116(Hz), ‘충고’는 137.460(Hz)이며, 높이의 폭은 ‘정보 제공’은 35.788(Hz), ‘충고’는 58.011(Hz)로 ‘충고’의 길이가 더 긴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표 11> 발화 의도별 한국인 학습자의 높이 최고·최저점, 폭(단위 Hz)

조사 항목	정보 제공	충고	<i>t</i>
높이 최고점	175.904	195.471	-1.776
높이 최저점	140.116	137.460	.331
높이 폭	35.788	58.011	-2.798*

주: * $p<.05$, ** $p<.01$, *** $p<.001$

아래 <표 12>는 성별에 따른 ‘よ’에 관한 높이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나 통계적 유의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표 12> 발화 의도와 성별에 따른 학습자의 최고·최저 높이, 폭(단위 Hz)

조사 항목		남자	여자
정보제공	높이 최고점	125.702	226.105
	높이 최저점	97.763	182.470
	높이 폭	27.939	43.636
충고	높이 최고점	145.864	245.079
	높이 최저점	109.105	165.815
	높이 폭	36.758	79.264

5.2.2 ‘よ’의 세기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에게서 나타나는 발화 의도별 강세의 최고점 및 최저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최고점과 관련해서는 ‘정보 제공’은 74.727(dB), ‘충고’는 77.370(dB)로 ‘충고’의 강세가 더 센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정보 제공’과 표현 형식이 같은 ‘よ’의 발화 의도를 구별하기 위하여 학습자 나름의 발음 학습 전략을 구사하여 세게 발음한 결과라고 파악된다. 최저점에 대해서는 ‘정보 제공’은 63.666(dB), ‘충고’는 64.843(dB)이며, 높이의 폭은 ‘정보 제공’은 9.818(dB), ‘충고’는 3.455(dB)이다.

<표 13> 발화 의미별 학습자의 발음 강세 최고·최저점, 폭 (단위 dB)

조사 항목	정보 제공	충고	t
강세 최고점	74.727	77.370	-3.517 **
강세 최저점	63.666	64.843	-.627
강세 폭	11.060	12.528	-.896

주: * p<.05, ** p<.01, *** p<.001

아래 <표 14>는 성별에 따른 ‘よ’에 관한 강세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나 통계적 유의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표 14> 발화 의미와 성별에 따른 학습자의 강세 최고·최저점, 폭(단위dB)

조사 항목		남자	여자
정보제공	강세 최고점	75.685	73.768
	강세 최저점	62.966	64.367
	강세 폭	12.719	9.401
충고	강세 최고점	78.851	75.890
	강세 최저점	65.091	64.594
	강세 폭	13.759	11.2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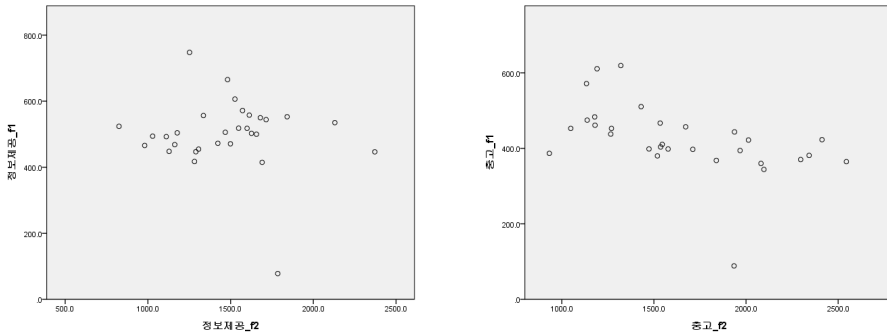
5.3 한국인 학습자의 문말 조사 ‘よ’의 모음의 음성적 특성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모음 특성의 경우 f1에서 정보제공(627.974Hz)이 충고(537.111Hz)에 비해 더 높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정보 제공’의 의도로 사용된 ‘よ’가 충고의 의미보다 입의 개방정도가 큰 상태에서 발음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5> 발화 의도에 따른 한국인 학습자의 모음 특성(단위 Hz)

조사 항목	정보 제공	충고	t
f1	500.944	424.433	3.656 **
f2	1470.065	1637.467	-1.893

주: * p<.05, ** p<.01, *** p<.001



<그림 2> 발화 의도별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f1과 f2의 관계
(좌측: 정보제공, 우측: 충고)

아래 <표 16>는 성별에 따른 ‘よ’에 관한 높이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나 통계적 유의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표 16> 발화 의도와 성별에 따른 한국인 학습자의 모음 특성(단위 Hz)

	f1		f2	
	정보제공	충고	정보제공	충고
남자	500.077	410.610	1352.395	1610.479
여자	501.811	438.255	1587.736	1664.454

주: * p<.05, ** p<.01, *** p<.001

5.4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문말 조사 ‘よ’의 높이 유형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경우 ‘정보 제공’에서는 하강과 상승이 각각 50%, ‘충고’에서는 하강이 56.7%, 상승이 43.3%로 파악되어, 발화 의도별 인토네이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발화 의도에 따른 ‘よ’의 인토네이션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7> 발화 의도별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よ’의 높낮이 유형(단위 %)

	정보제공	충고
↘ (하강)	50.0	56.7
↗ (상승)	50.0	43.3

이상 살펴본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음성을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よ’의 ‘정보 제공’과 ‘충고’의 발화 의도 사이에 유의차가 인정되는 곳은 높이의 폭, 강세의 최고점, 모음의 f1값인 것을 알 수 있다.

6. 일본어 모어화자와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よ’의 음성적인 특성의 대조

위에서 살펴본 일본어 모어화자와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음성에 나타난 발화 의도별 ‘よ’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정보 제공’의 ‘よ’의 경우, 전체 문장의 길이에서 일본어 모어화자가 1.796(ms), 한국인 학습자가 2.564(ms)로 한국인 학습자의 길이가 더 길며 이러한 차이는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강세에서는 최고점이 일본어 모어화자가 81.363(dB), 한국인 학습자가 74.727(dB)로 일본어 모어화자의 강세가 더 세며 이러한 차이는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최저점은 일본어 모어화자가 71.545(dB), 한국인 학습자가 63.666(dB)로 한국인 학습자의 강세가 더 약하며 이러한 차이는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모음의 특성에서는 f1의 값이 일본어 모어화자가 627.974(Hz), 한국인 학습자가 500.944(Hz)로 일본어 모어화자가 더 높으며 이러한 차이는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충고’의 ‘よ’의 경우, ‘よ’의 길이에서 일본어 모어화자가 .199(ms), 한국인 학습자가 .249(ms)로 한국인 학습자가 길며 이러한 차이는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전체 문장의 길이에서는 일본어 모어화자가 2.009(ms), 한국인 학습자가 2.565(ms)로 한국인 학습자의 길이가 더 길며 이러한 차이는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강세에서는 최고점이 일본어 모어화자가 82.427(dB), 한국인 학습자가 77.370(dB)로 일본어 모어화자가 더 세며 이러한 차이는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최저점은 일본어 모어화자가 78.972(dB), 한국인 학습자가 64.843(dB)로 한국인 학습자가 더 낮으며 이러한 차이는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모음의 특성에서는 f1의 값이 일본어 모어화자가 537.111(Hz), 한국인 학습자가 424.433(Hz)로 일본어 모어화자가 더 높으며 이러한 차이는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18> 일본어 모어화자와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발화 의도별 ‘よ’의 음성적인 특징 대조

		정보 제공			충고		
		일본인	한국인	<i>t</i>	일본인	한국인	<i>t</i>
길이 (ms)	‘よ’의 길이(A)	.202	.232	1.002	.199	.249	2.129*
	전체 문장 길이(B)	1.796	2.564	5.061***	2.009	2.565	3.488**
	(A)/(B) 비율	11.126	9.176	-1.837	10.015	10.082	.058
높이 (Hz)	최고점	219.283	175.904	-1.887	227.221	195.471	-1.343
	최저점	163.568	140.116	-1.694	156.612	137.460	-1.387
	높이폭	55.714	35.788	-1.321	70.609	58.011	-.685
강세 (dB)	최고점	81.363	74.727	-2.485**	82.427	77.370	-2.030*
	최저점	71.545	63.666	-2.605**	78.972	64.843	-2.300*
	강세폭	9.818	11.060	.529	3.455	12.528	1.584
모음 (Hz)	f1	627.974	500.944	-4.165***	537.111	424.433	-4.086***
	f2	1440.049	1470.065	.314	1565.538	1637.467	.555

주: 1) * $p < .05$, ** $p < .01$, *** $p < .001$

2) 동분산이 가정됨.

발화 의도별 ‘よ’의 높낮이 유형을 보면, ‘정보 제공’의 ‘よ’의 경우, 일본어 모어화자는 상승조가 73%,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는 50%이었다. ‘충고’의 ‘よ’의 경우 일본어 모어화자는 상승조가 86.7%,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는 43.3%를 차지하여 통계적 유의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표 19> 일본인 화자와 한국인 학습자의 발화 의미별 ‘よ’의 높낮이 유형(단위 %)

	정보 제공		충고	
	일본인	한국인	일본인	한국인
↘ (하강)	26.7	50.0	13.3	56.7
↗ (상승)	73.3	50.0	86.7	43.3

이상 일본어 모어화자와 한국인 학습자의 음성적인 특징을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よ’의 ‘정보 제공’이라는 발화 의도 사이에 유의차가 인정되는 곳은 전체 문장 길이, 강세의 최고점

및 최저점, 모음의 f값인 것을 알 수 있다. ‘よ’의 ‘충고’라는 발화 의도 사이에 유의차가 인정되는 곳은 ‘よ’의 길이, 전체 문장 길이, 강세의 최고점 및 최저점, 모음의 f값인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인 학습자의 경우, 두 발화 의도의 전체 문장 길이가 긴 것은 일본어에 익숙하지 않다보니 일본인 보다 천천히 발음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일본어 모어화자와 같이 ‘정보 제공’보다는 ‘충고’의 의미에 강세를 두어 발음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본어 모어화자에 비해 강세의 최고점과 최저점의 수치가 낮으므로 발음할 때 강세 조절에 주의가 요구된다. 그리고, 모음의 f값에서도 일본어 모어화자와 같이 ‘충고’보다는 ‘정보 제공’의 의미를 입을 크게 해 발음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본어 모어화자의 수치가 높으므로 발음할 때 주의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충고’의 ‘よ’를 보면, 일본인의 경우 ‘충고’의 ‘よ’보다 ‘정보제공’의 ‘よ’가 약간 긴 경향이 있으나, 한국인 학습자의 경우 그 반대로 길게 발음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7. 나오며

지금까지 다양한 의미와 감정 표현을 나타내는 문말 조사 ‘よ’에 초점을 맞추어 일본어 모어화자의 음성적인 특징을 살펴보고, 이와 대조적인 관점에서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에게 나타난 문말 조사 ‘よ’의 음성적인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에 의하면 일본어 모어화자의 경우, ‘よ’의 ‘정보 제공’과 ‘충고’라는 발화 의도를 구별하는 음성적인 요인으로 발화 전체 문장 길이와 모음의 f값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화 전체 문장의 길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문말 조사 ‘よ’에 관한 음성적인 특징만이 아니라 다른 문장 성분도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으나, 이에 관해서는 다음 기회에 보고하기로 한다.

이에 반하여,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경우는 ‘よ’의 높이의 폭, 강세의 최고점, 모음의 f값을 통하여 ‘よ’의 ‘정보 제공’과 ‘충고’라는 발화 의도를 구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실로 일본어 모어화자는 표현 형식이 같은 ‘よ’의 발화 의도를 구별하기 위하여 입모양의 개방 정도를 조절하는 것에 비해서,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는 강세나 입모양의 개방 정도를 조절하거나 경우에 따라서 ‘よ’의 길이를 조절하는 등의 발음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일본어 모어화자와 한국인 학습자의 음성을 살펴본 결과, ‘정보 제공’의 ‘よ’는 전체 문장 길이, 강세의 최고점 및 최저점, 모음의 f값이, ‘충고’의 ‘よ’는 ‘よ’의 길이, 전체 문장 길이, 강세의 최고점 및 최저점, 모음의 f값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가 다양한 발화 의도를 나타내는 ‘よ’를 발음하는 경우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이나, 앞으로 보다 세밀한 분석과 지각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다양한 발화 의도를 나타내는 ‘よ’의 음성적인의 특징을 밝혀내는 것은 효과적인 인토네이션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과 함께 나아가서는 자연스러운 일본어의 정확한 발화 의도에 관한 표현 능력을 증진시켜, 이해관계를 초월한 원활한 의사소통이라는 공동선(共同善)의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는 문말 조사 ‘よ’의 ‘정보 제공’과 ‘충고’라는 2가지의 발화 의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나, 그 밖의 발화 의도에 대해서도 차후에 그 결과를 보고하기로 한다.

【參考文獻】

- 金姪衍(2013)「韓國人 日本語 學習者の 악센트 學習에 관한 考察」『日本語文學』60輯, pp.65-86
- 민광준(1989)「韓國語話者の日本語音声における韻律的特徴とその日本語話者による評価」『日本語教育』明治書院 pp.175-190
- 민광준(2008)『일본어음성학입문』건국대학교 출판부, pp.205-212
- 조복순(2000)「일본어 문말 조사「よ」의 인토네이션에 관한 고찰:한국인 일본어 학습자를 대상으로」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지아(2005)「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일본어 문말 인토네이션 습득 연구:문말사「よ」「ね」를 중심으로」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은재(2012)「일본어 음성교육에 관한 고찰:문말 조사「よ」의 인토네이션을 중심으로」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 片桐恭弘(1997)「終助詞とイントネーション」『文法と音声』くろしお出版, pp.235-256
- 小山哲春(1997)「文末詞と文末イントネーション」『文法と音声』くろしお出版, pp.97-119
- 田中真一・窪園春夫(1999)『日本語の発音教室』くろしお出版, pp.120-123
- 日本語教育学会編(2006)『新版 日本語教育事典』大修館書店, pp.22-709

논문투고일 : 2015년 06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5년 06월 20일
 1차 수정일 : 2015년 07월 08일
 2차 수정일 : 2015년 07월 14일
 게재확정일 : 2015년 07월 20일

〈要旨〉

文末 助詞 ‘よ’의 發話 意圖에 따른 音響音聲學的 特性에 관한 考察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발화 의도에 따른 문말 조사 ‘よ’의 인토네이션을 음향음성학적인 측면에서 고찰하고, 일본어 인토네이션 교육을 위한 실증적이고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인토네이션은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인토네이션의 차이는 외국어 학습자와 모어화자와의 대화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음 교육에 있어서 인토네이션 교육은 오랫동안 중요시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에 따라 문말 조사 ‘よ’와 그 인토네이션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문에서는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와 일본어 모어화자의 문말 조사 ‘よ’의 발화에 대하여 피치패턴, 전체 및 문말 조사 ‘よ’의 발화 지속 시간, 피치의 폭, 강세의 폭, 모음의 f1, f2의 수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밖에도 많은 음성적 특징이 관계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나아가 보다 다양한 발화 의도에 대해서도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가 일본어 음성 교육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보다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교육 방법론적 연구도 차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Study of the sentence-final particles ‘yo’ focused on the phonological features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the sentence-final particles’s intonation Japanese language learners show in their speech in the Korean-language-use regions in the aspect of phonetics and is to provide practical and fundamental documents for the intonation education of Japanese language as well.

Intonation has many functions and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speech because the intonation difference between native speakers and non-native speakers can cause misunderstanding in their communication. Nevertheless, teaching intonation was neglected in pronunciation instruction for a long time. Recently intonation instruction is considered to be important and necessary.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various usages of prosody on sentence-final particles’s ‘yo’ in Japanese.

This research addressed sentence-final particles’s intonation for both Korean learner’s speech and Japanese focusing on pitch patterns, containment time for all, and sentence-final particles’s ‘yo’, width of pitch, width of intensity, F1 and F2 rate for vowel. It is considered that speaker’s intention for Japanese sentence-final particles’s ‘yo’ involves many different acoustic characteristics. Furthermore, it is needed to study various speaker’s intention and to conduct tests for Japanese natives to decide Korean natives’ Japanese locution intentions.

Also effective and concrete study on methodology education is required to utilize this study for Japanese phonetics study.